

## 일반 초·중·고등학교에서 보편적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을 적용한 국내 실험 연구 분석

최하영\*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

---

### 〈요 약〉

---

긍정적 행동지원은 학교에서의 문제행동 관리에 관한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일반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 및 학급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을 실행한 국내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분석된 연구는 국내 전문 학술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하여 1997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총 9편의 연구를 일반적인 특성, 실행 단계 및 활용된 중재 전략이라는 세 가지 분석틀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혹은 학년 전체 차원에서 긍정적 행동지원이 실행된 연구는 3편, 학급차원에서 긍정적 행동적 행동지원이 실행된 연구는 6편이었다. 둘째, 보편적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의 실행 단계 별로 분석한 결과 주로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연구자(외부지원자)가 긍정적 행동지원 협력팀원으로 참여하였고, 충실도 높은 실행을 위해 협력팀 교육 및 정기적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셋째, 보편적 차원에서 긍정적 행동지원을 위한 중재 전략으로는 환경의 재구조화, 목표행동 정하기 및 사전교수, 자기점검 및 평가와 그에 따른 강화가 주로 활용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와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학교차원, 학급차원, 보편적 차원, 긍정적 행동지원, 통합학교

---

\* 교신저자(hayoung@knue.ac.kr)

## I. 서 론

학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전통적으로 안전한 곳이라고 인식되어 왔던 학교가 변화하고 있다. 일반학생이나 장애학생을 불문하고 모든 학생에게 학교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삶의 장소이고 이러한 학교가 안전한 공간이 되기를 기대하나 최근 일련의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학교 부적응에 관한 미디어의 뉴스들을 접하면 이러한 기대가 조금씩 무너짐을 느끼게 된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행동관리를 위해 그동안 활용해 왔던 일반적인 훈육 등의 방법으로는 이러한 변화하는 학교환경에서 학생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2004년 1월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후 교원양성과정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교직소양과목으로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과목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등 정책적 측면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행동관리에 어려움을 보고한다. 특히 통합교육이 강조되는 최근의 추세에 따라 많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통합교육을 받고 있지만 통합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지도하는데 가장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야는 문제행동에 대한 지원이고(최선실, 박승희, 2001),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판별되지는 않았지만 행동이나 학업에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박지연, 조운경, 김미선, 2004).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학교에서 교사는 한 학생만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위한 개별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갖는다. 또한 문제행동은 문제행동이 발생한 사후에 지원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학교의 전체적인 교수맥락에서 예방적인 접근을 적용하는 것이 학업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개발하여 장기적인 성과를 제고하는데 더 유용하다는 점이 강조되면서 학교 전체 차원에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행동관리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Turnbull et al., 2002). 문제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중재방안들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문제행동은 학생이 속한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생태학적 접근이 주목받아 오면서 학교에서 학생의 문제행동을 지원할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학생 개인의 문제행동을 중재하기 위한 개별차원의 접근 뿐만 아니라 학생이 속한 집단차원에서 문제행동의 지원을 위한 접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집단차원의 행동지원은 단순히 문제행동을 중재하기 위한 방안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집단의 문제행동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김미선, 2008; 김현욱, 2017).

최근 근거기반의 실체가 강조되는 가운데 행동지원 분야에서 학생들의 문제행동 지원을 위해 그 효과성이 입증된 전략으로 긍정적 행동지원(Positive Behavior Support, PBS)이 제안되고 있다. 1990년대 초반 미국에서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의 걸림돌로 지적되던 문제행동을 중재하기 위해 시작된 긍정적 행동지원은 미국의 경우 1997년 개정된 미국 장애인교육법(IDEA)에서 Positive Behavioral Interventions and Supports(PBIS)로 처음으로 언급되면서 학교에서의 행동지원을

위한 최선의 실제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행동지원의 최선의 실체는 문제 행동 발생의 예방임이 강조되면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의 문제행동 감소를 위한 개별차원의 지원 뿐 만 아니라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이 속한 학급 혹은 학교 전체 수준에서 행동지원의 제공을 통해 직접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모든 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할 수 있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대두되었다(Sugai & Horner, 2002). 학교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Schoolwide Positive Behavior Support)을 설명한 Turnbull과 그녀의 동료들(2002)은 학교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은 학교 전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보편적 지원(Universal support), 보편적 지원만으로 문제행동을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소그룹 차원의 지원(Group support), 그리고 그룹 차원의 지원 이외에 심층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위한 개별화된 지원(Individualized support)의 다차원적 지원으로 구성됨을 언급하였다. 보편적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은 학생들이 학습하는 학교의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이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학습과 사회·정서적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 학생들에게 문제행동의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교수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데(김미선, 송준만, 2004) 이 단계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적절한 행동이 무엇이고 그렇지 않은 행동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하고 적극적으로 교수한다. 두 번째 집단차원의 지원 단계에서는 문제행동의 위험은 있지만 아직 집중적인 개별차원의 중재가 필요하지는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편적 차원에서 교수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소그룹 차원에서 교수하고, 자기관리 기술, 사회적 기술, 집단 강화와 같은 중재방법 등을 통해 행동지원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개별차원의 지원 단계에서는 문제행동을 보이는 개별학생을 대상으로 개별화되고 종합적이며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한다(Horner, Sugai, Todd, & Lewis-Palmer, 2005; Turnbull et al., 2002). 이러한 3단계의 긍정적 행동지원 중 특히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보편적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은 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모든 학생들의 성장을 위한 학교 문화를 만들려는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어 단순히 교사들이 효과적인 행동관리 전략을 배운다는 것을 넘어 통합적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도록 학교 체제변화를 이끄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기도 하다(Freeman, Eber, Anderson, Irvin, Horner, Bounds, & Dunlap, 2006).

국내에도 2000년대 초반 긍정적 행동지원이 소개되면서 그 효과성을 입증하려는 중재 적용 실험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었고, 이러한 연구에 대한 문헌분석도 여러 편 발표되었다. 예를 들어, 국외의 긍정적 행동지원 적용연구의 문헌분석으로는 김영란(2009)과 김경양, 남보람, 김영란과 박지연(2010)의 문헌 연구가 있다. 김영란(2009)은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에 관한 국외 연구 9편을 학교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실행단계, 보편적 차원의 행동지원 중재 전략을 중심으로 문헌분석하였으며, 김경양, 남보람, 김영란과 박지연(2010)은 학교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을 적용한 국외 연구 13편을 보편적 지원의 실행 충실도를 살펴보는 Benchmarks of Quality(BoQ) 질적지표를 분석의 틀로 사용하여 문헌분석을 실시하였다. 국내외 긍정적 행동지원 관련 연구

의 문헌분석으로는 김창호, 김정민, 그리고 백은희(2011)의 연구가 있다. 김창호 등(2011)은 지적 장애 학생에게 긍정적 행동지원을 적용한 국외 연구 3편과 국내 연구 12편 총 15편의 연구를 고찰하였다. 국내의 긍정적 행동지원을 적용한 연구에 관한 문헌연구로는 신윤희 등(2009), 김보람과 나경은(2010), 강민채(2011), 정길순과 노진아(2011), 정은주(2013), 김지영과 고혜정(2014), 문병훈과 이영철(2014), 김유리, 양영모와 노진아(2015)의 문헌 분석이 있다. 이렇게 국내에서 실행된 긍정적 행동지원에 관한 문헌 분석이 여러 편 보고되었다는 것은 긍정적 행동지원에 관한 효과성을 입증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국내에서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헌 고찰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수의 긍정적 행동지원 연구들은 개별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적용되고 있었고, 개별학생이 아닌 학교 및 학급 차원에서 긍정적 행동지원이 실시된 연구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연구동향은 학생들이 보이는 문제행동을 여전히 학생 개인차원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이거나 국내 학교 현장에서 여전히 학교 전체 차원에서 긍정적 행동지원을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일 수 있다(문병훈, 이병철, 2016). 그럼에도 서두에서 밝혔듯이 일반학교에서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행동관리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개인차원을 넘어 집단 차원에서 긍정적 행동지원을 적용하고 그 효과성을 살펴보려는 국내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보편적 차원에서의 긍정적 행동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문헌 분석은 국외에서 실행된 학교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에 관한 김영란(2009)과 김경양, 남보람, 김영란 그리고 박지연(2010)의 분석 이외에는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은 주목해 볼 만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학교에서 보편적 차원으로 실행된 긍정적 행동지원 연구에서 사용된 행동관리 전략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실제 통합교육 현장에서 소수의 장애학생만을 위한 개별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아닌 모든 학생의 문제행동의 예방과 증재를 위해 일반교사들이 실제 활용가능한 증재 요소들을 도출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또한 근거기반의 실체가 강조되는 최근의 연구 동향속에서 통합교육 현장에서 실행된 보편적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연구들의 특징과 그 성과를 살펴보고 추후 보편적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는 일반교사들이 실제 교실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활용가능한 행동관리 전략을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학교에서 학교 전체 차원에서 실행된 긍정적 행동지원과 학급 전체 차원에서 실행된 긍정적 행동지원 모두를 보편적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으로 정의하고 일반학교에서 보편적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을 실행한 연구를 다음의 연구문제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문제 1. 일반학교에서 보편적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을 실행한 연구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 2. 보편적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실행단계의 특징들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 3. 보편적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증재에 활용된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인가?

## II. 연구방법

### 1. 문헌 선정 방법 및 기준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논문은 개정된 미국 장애인법(IDEA)에서 기능평가와 긍정적 행동지원이 법적으로 규정화된 1997년을 기점으로 하여 2017년 9월 현재 국내에서 발표된 실험연구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연구의 구체적인 조사방법과 분석 연구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전문 검색 사이트인 ‘한국학술정보원(RISS)’, ‘학술데이터베이스(KISS)’, ‘누리미디어(DBpia)’를 이용하여 검색된 논문에 한정하였다.

둘째, 검색어는 ‘긍정적 행동지원’, ‘PBS’, ‘학교차원’, ‘학급차원’, ‘보편적 차원’을 사용하였다.

셋째, 검색된 논문 중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학위논문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넷째, 일반 초·중·고등학교에서 보편적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을 독립변인으로 적용한 실험연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보편적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이란 학교 차원(Schoolwide) 그리고 학급차원(Classwide)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긍정적 행동지원이 실행된 경우를 의미한다. 학교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에 관한 국외 연구를 분석한 김영란(2009)이나 김경양 등(2010)의 문헌분석에서는 학급이나 학년차원에서 실행된 보편적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연구는 제외하였으나, 국내의 경우 일반학교 전체 차원에서 보편적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을 실행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고, 본 연구가 일반학교에서 모든 학생의 행동관리 전략으로서의 보편적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의 실행 가능성과 성과를 살펴보고자 하는 문헌고찰이기 때문에 학교 전체 차원 뿐만 아니라 학급 차원에서 긍정적 행동지원을 실행한 연구를 포함하였다. 따라서 특수학교에서 긍정적 행동지원을 실시한 연구는 제외되었다.

다섯째, 국내 긍정적 행동지원에 관한 국내 선행 문헌 분석(강민채, 2011; 김보람, 나경은, 2010; 김유리, 양영모, 노진아, 2015; 김지영, 고혜정, 2014; 문병훈, 이영철, 2014; 신윤희 외, 2009; 정은주, 2013)의 참고문헌을 살펴보고 선행 분석에 포함된 연구 중 보편적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연구를 확인하여 누락되는 연구가 없도록 하였다.

이러한 기준으로 총 9편의 논문이 선정되었다.

### 2. 분석의 틀

본 연구에서는 보편적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에 관한 선행 문헌분석(김미선, 송준만, 2004; 김영란, 2009; 정은주, 2013)을 참고하여 총 9편의 문헌을 분석하기 위해 세 가지 분석 틀을 사용했다. 첫째, 분석된 연구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고, 보편적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의 실

행단계에 따른 적용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보편적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적용을 위해 활용된 전략을 분석하였다. 9편의 연구 중 5편의 연구에서는 1-3명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개별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도 함께 실행되었으나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제외되었다. 세 가지의 분석들은 다음과 같다.

### 1) 일반적 특성

연구의 중재 차원은 학교차원, 학급차원으로 나누어 분석되었다. 학교차원과 학급차원은 다시 학교 혹은 학급 차원의 지원만 실행된 경우 단독으로 분석되었고, 보편적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이외에 소그룹 혹은 개별차원의 지원이 제공되었는지 확인하였다. 각 분석된 연구는 연구참여자(학교급, 학년, 전체 학생수와 장애학생 수), 실험 설계, 종속변인, 연구결과, 사회적 타당도의 측정 여부로 분석되었다.

### 2) 보편적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실행 단계

학교 및 학급차원의 보편적 긍정적 행동지원의 실행 단계에 대한 분석을 위해 Sugai와 Horner(2002)가 제시한 학교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실행단계에 따라 국외 연구를 분석한 김영란(2009)의 SW-PBS의 실행단계 분석의 틀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분석틀로 사용하였다. 보편적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의 실행단계에는 리더십 팀 구성, 기존의 훈육 실태 평가를 포함한 실행 계획 개발, 실행 충실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 자료점검, 그리고 중재충실도의 측정 여부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었다. 자료점검의 경우 분석된 연구들이 실험설계를 활용하여 긍정적 행동지원의 영향을 점검한 바 종속변인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자료를 점검한 시기를 살펴보았다.

### 3) 보편적 차원의 행동지원 중재 전략

보편적 차원의 행동지원 중재 전략은 김미선과 송준만(2004)이 보편적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을 위한 요소로 제시한 7가지 요소를 참고하고, 국내에서 실행된 보편적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중재 전략을 분석한 정은주(2013)의 분석틀을 참고하였다. 중재전략 분석에는 환경의 구조화, 기대행동 정하기 및 사전 교수, 집중 구호 익히기, 사회적 기술의 교수, 자기 점검 및 평가 전략의 사용, 강화 체계 그리고 그 외 실행된 전략이 분석되었다.

## III.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9편의 연구를 세 가지 분석 틀에 따라 일반적 특성, 실행단계, 활용된 중재 전략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에게 적용된 중재 차원을 살펴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학교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을 적용한 연구는 3편으로 문병훈과 이영철(2016)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6학년까지 학교 전체차원에서 긍정적 행동지원을 적용하고 개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지적장애학생에게 개별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을 실행하였으며, 김미선과 송준만(2006)은 초등학교 6학년 전학년에, 김보경과 박지연(2017)은 초등학교 3학년 전체 학년에 긍정적 행동지원을 실행하였다. 나머지 6편의 연구는 한 학급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학급차원 단독으로 긍정적 행동지원을 적용한 연구는 1편(차재경, 김진호, 2014), 학급 전체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과 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소그룹 차원의 행동지원을 함께 적용한 연구는 1편(이선아, 이효신, 2015), 학급차원과 개별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실행된 연구는 4편(강삼성, 이효신, 2012; 김미선, 박지연, 2005; 윤은미, 김자경, 강혜진, 2007; 이동철, 이재원, 2011)이었다.

<표 1> 긍정적 행동지원을 적용한 연구의 중재 차원

연구(연도)	학교차원		학급차원		
	단독	+개별	단독	+소그룹	+개별차원
김미선, 박지연(2005)					○
김미선, 송준만(2006)	○ (학년단위)				
윤은미, 김자경, 강혜진(2007)					○
이동철, 이재원(2011)					○
강삼성, 이효신(2012)					○
차재경, 김진호(2014)			○		
이선아, 이효신(2015)				○	
문병훈, 이영철(2016)	○ (전체학교)				
김보경, 박지연(2017)	○ (학년단위)				

분석된 9편의 연구의 전반적인 특성은 <표 2>에 제시되었다. 고등학교 체육시간에 실행된 1편(이동철, 이재원, 2011)의 연구를 제외한 8편의 연구는 초등학교에서 실행되었다.

보편적 차원과 개별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의 성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른 실험설계가 활용되었다. 보편적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의 경우 5편의 연구에서 사전사후설계를 활용하여 t 검증을 통해 전체 변화(강삼성, 이효신, 2012; 김미선, 송준만, 2006; 김보경, 박지연, 2017; 문병훈, 이영철, 2016; 차재경, 김진호, 2014)를 살펴보았다. 2편의 연구에서는 긍정적 행동지원의 실행 전과 실행 후의 행동빈도의 측정을 통해 변화(김미선, 박지연, 2005; 윤은미 외, 2007)를 제

〈표 2〉 분석된 연구의 보편적 차원 긍정적 행동 부분에 대한 전반적 특성

연구 (연도)	연구대상		실험설계	종속변인	적용결과	사회적 타당도
	학교급 (학년)	전체학생 (장애학생)				
김미선, 박지연 (2005)	초(3)	28(1)	● 사전·사후설계(전체)	문제행동	● 학급전체 문제행동 감소	×
김미선, 송준만 (2006)	초(6)	237	● 단일집단 사전·사후설계 (t검증, 학교분위기) ● 기술분석(문제행동, 혼육 지도)	문제행동, 혼육지도, 학교분위기	● 학년전체 문제행동 감소 ● 학년전체 혼육지도 빈도감소 ● 학년전체 학교분위기 개선	×
윤은미, 김자경, 강혜진 (2007)	초(4)	27(1)	● 사전·사후설계	문제행동	● 학급전체 문제행동 감소	×
이동철, 이재원 (2011)	고 (N/A)	N/A(3)	N/A	N/A	N/A	×
강삼성, 이효신 (2012)	초(3)	21(3)	● 단일집단 사전·사후검사 (t검증, 학교생활만족도) ● 기술분석(문제행동)	문제행동, 학교생활 만족도	● 학급전체 문제행동 감소 ● 학급전체 학교생활 만족도 개선	×
차재경, 김진호 (2014)	초(4)	24(1)/ 27(1)	● 사전·사후집단설계(t검증)	수업참여행동, 수업방해행동	● 학급전체 문제행동 감소	○
이선아, 이효신 (2015)	초(2)	16 [소그룹2]	● AB설계	문제행동	● 학급전체 문제행동 감소	×
문병훈, 이영철 (2016)	초(1-6)	67(3)	● 단일집단 사전·사후검사 (t검증, 학교생활만족도)	문제행동, 학교생활 만족도	● 학교전체 문제행동 감소 ● 학교전체 학교생활 만족도 개선	○
김보경, 박지연 (2017)	초(3)	51(3)	● 단일집단 사전·사후설계 (t검증, 사회적 능력, 학교 분위기) ● 기술분석(수업참여행동)	사회적 능력, 수업참여행동, 학교분위기	● 학년전체 사회적 능력 향상 ● 학년전체 수업참여행동 증가 ● 학년전체 학교분위기 개선	○

Note. N/A=언급 없음. 이동철, 이재원(2011)의 연구에서는 보편적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을 실행하였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않음.

시하였으며, 이선아와 이효신(2015)은 AB설계를 사용하였다고 보고하였고, 학급 전체의 행동변화를 기초선과 중재 동안의 행동에 대한 평균을 나타내는 막대그래프로 제시하였다.

종속변인은 전체차원의 결과만 살펴보면, 김보경과 박지연(2017)과 이동철과 이재원(2011)의 연구를 제외한 7편의 연구에서 전체 연구참여학생들의 문제행동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김보경과 박지연(2017)의 연구에서는 전체 학생들의 행동변화 측면에서 수업참여행동을 측정하였고, 차재경과 김진호(2014)의 연구에서는 전체 학생들의 문제행동과 더불어 수업참여행동을 측정하였다. 김미선과 송준만(2006)의 연구에서는 학년 전체의 훈육지도의 빈도수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행동적인 측면 이외의 정서적 측면에서 학교분위기를 측정한 연구는 2편(김미선, 송준만, 2006; 김보경, 박지연, 2017), 학교생활만족도를 측정한 연구는 2편(강삼성, 이효신, 2012; 문병훈, 이영철, 2016), 사회적 능력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는 1편(김보경, 박지연, 2017)이었다. 이동철과 이재원(2011)의 연구에서는 학급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을 실행하였다고 하였으나 학급 전체학생의 행동변화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았다.

보편적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을 적용한 결과 모든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종속변인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고하였다. 행동적인 측면에서는 수업참여행동의 증가와 문제행동의 감소,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학교분위기와 학교생활만족도가 향상되었다.

생태학적 접근인 보편적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의 실행에 관한 사회적 타당도를 측정한 연구는 총 9편의 연구 중 3편(김보경, 박지연, 2017; 문병훈, 이영철, 2016; 차재경, 김진호, 2014)이었다.

## 2. 보편적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실행 단계

보편적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의 실행 단계별 특성은 <표 3>에 제시되었다.

### 1) 긍정적 행동지원 협력팀

9편의 연구 모두에서 긍정적 행동지원 협력팀이 구성되었다고 보고하였는데, 학교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실행된 3편의 연구(김미선, 송준만, 2006; 김보경, 박지연, 2017; 문병훈, 이영철, 2016)에서는 교장과 교감을 포함한 학교관리자가 협력팀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였고 그 외의 연구에서는 실제 실행하는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주로 실행팀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였으며, 강삼성과 이효신(2012)의 연구에서는 보건 및 영양교사, 실무원과 교육실습생이 협력팀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이선아와 이효신(2015)은 협력팀을 구성하였다고 언급하였으나 구체적인 구성원은 밝히지 않았다.

분석된 9편의 연구 중 5편의 연구에서 전체 실행팀의 정기적인 협의회가 실시되었다(김미선, 박지연, 2005; 김미선, 송준만, 2006; 김보경, 박지연, 2017; 문병훈, 이영철, 2016; 차재경, 김진호, 2014). 실행팀 전체 협의회는 3편의 연구에서 주 1회(김보경, 박지연, 2017; 문병훈, 이영철, 2016; 차재경, 김진호, 2014), 2편의 연구에서 월 1회(김미선, 박지연, 2005; 김미선, 송준만, 2006)

〈표 3〉 보편적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실행 단계

연구	긍정적 행동지원 협력팀		자료 기반 실행 계획 개발	충실도 높은 실행 계획 전략	자료점검	증제충실도
	구성원	회의회 일정				
김미선, 박지연 (2005)	담임교사, 특수교사, 연구자	담임교사 (주1회) 전체팀 (월1회)	교실환경점검, 교사의 학급 운영기술 확인, <b>(기능평가)</b>	실행팀 교사교육(4회기), 연구개시1개월은 담임교사와 특수교사와 연구자 주2-3회 협의, 실행팀 정기적 회의회	사전 사후	×
김미선, 송준만 (2006)	학교장, 교감, 담임교사, 특수교사, 연구자	담임교사 (주2회) 전체팀 (월1회)	기존 혼육지도 자료 검토, 기존 문제행동 지도 자료 검토, 학교장, 교사, 학생 면담 <b>(기능평가)</b>	실행팀 교사교육(7회기), 실행팀 정기적 회의회	사전 사후, 월별	×
윤은미, 김자경, 강혜진 (2007)	특수교사, 전 학년도 담임교사, 음악전담 교사, 연구자	×	×	지원모임(4단계)	사전 사후	×
이동철, 이계원 (2011)	담임교사, 특수교사, 체육교사, 연구자	×	×	교사교육(회기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음)	×	×
장삼성, 이효신 (2012)	담임교사, 특수교사, 교장, 교감, 동학년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실무원, 교육실습생, 연구자	×	혼육지도 기록 검토, 학부모 상담 자료 검토, 학급일지 검토 담임교사 · 보조교사 · 학부모 · 학급내 모든 학생 면담 <b>(기능평가)</b>	실행팀 교사교육 6회기	사전, 사후	○
차재경, 김진호 (2014)	담임교사, 도덕·체육교과 담당교사, 특수교사, 연구자	전체팀 (주1회)	직접관찰 및 면담 <b>(기능평가)</b>	실행팀 교사교육 8회기, 실행팀 정기적 회의회, 연구자는 주1회 지도교수를 통해 전반적인 증제에 대한 연구자 교육받음	사전, 사후	○
이선아, 이효신 (2015)	협력 팀을 구성하였다고 하였으나 구성원은 밝히지 않음	×	직접관찰, 개별학생 및 학부모 면담 <b>(기능평가)</b>	실행팀 교사교육(회기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음)	기초선, 증제, 유지	○
문병훈, 이영철 (2016)	교장, 교감, 1-6학년 담임교사, 전담교사, 특수교사, 행정실 직원, 특수교육실무원, 장애학생 보호자, 자문(교수), 연구자	전체팀(주1회) 및 수시	직접관찰, 교장, 교감, 교사, 학생에게 설문 <b>(기능평가)</b>	외부전문가(교수) 자문, 실행팀 교사연수 7회기, 실행팀 정기적 회의회	사전 사후	○
김보경, 박지연 (2017)	교장, 교감, 담임교사, 교과교사, 특수교사, 연구자	전체팀(주1회)	팀평가 <b>(기능평가)</b>	실행팀 교사교육(사전교육) 4회기, 실행팀 정기적 회의회, 외부 전문가 자문 회의회, 전교사 대상 연수 및 홍보(소식지), 가정과의 연계(소식지 발행 통한 학부모 교육)	사전 사후, 월별	○

Note. ×=구체적인 언급 없음.

수준으로 실행되었다. 전체 회의회가 월 1회 실행된 2편의 연구의 경우 주1회 혹은 주2회 담임교사와 회의회를 실시하였다고 보고하였다.

## 2) 자료 기반 실행 계획 개발

보편적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에 관한 중재 계획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훈육지도 자료나 문제행동 지도 자료 등의 자료를 점검한 연구는 3편(김미선, 박지연, 2005; 김미선, 송준만, 2006; 강삼성, 이효신, 2012)이었다. 김미선과 박지연(2005)은 교실환경을 점검하고 교사의 기존 학급운영기술을 확인하였고, 김미선과 송준만(2006)은 기존 훈육지도 자료와 문제행동 지도 자료를 검토하였다. 강삼성과 이효신(2012)은 기존 훈육지도 자료, 학급일지와 학부모 상담 자료를 검토하였다.

8편의 연구에서 기능평가를 실행하였다. 보편적 차원에서의 기능평가는 학교 전체 혹은 학급 전체에서 발생하는 문제행동의 주 이유를 파악하여 보편적 차원의 중재를 개발하는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면담과 직접관찰을 통한 기능평가가 주로 이루어졌는데, 학교장을 포함하여 교사, 학생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한 연구는 학교차원의 보편적 긍정적 행동지원을 실행한 2편의 연구(김미선, 송준만, 2006; 문병훈, 이영철, 2016)가 있었고, 학급차원의 보편적 차원의 행동지원이 실행된 6편의 연구에서는 교사와 학생 혹은 학부모를 포함한 면담이 실행되었다. 직접관찰을 통해 중재 계획 전 현행 상태를 점검한 연구는 3편(문병훈, 이영철, 2016; 이선아, 이효신, 2015; 차재경, 김진호, 2014)으로 학교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을 실행한 문병훈과 이영철(2016)은 교실, 계단과 복도, 화장실, 식당, 놀이터를 포함한 전반적인 학교환경에서 직접관찰을 통해 문제행동의 유형을 파악하였다.

## 3) 충실도 높은 실행 계획 전략

충실도 높은 중재 실행을 위해 교사의 전문성 개발과 지원 측면에서 연구를 분석한 결과 8편의 연구에서 실행팀을 대상으로 교사교육이 실시되었고, 1편의 연구(윤은미 외, 2007)에서 실행팀을 위한 지원모임을 실행하였음을 보고하였다. 5편의 연구에서 긍정적 행동지원이 실행되는 동안 지원팀의 정기적 협의회를 실시하였다(김미선, 박지연, 2005; 김미선, 송준만, 2006; 김보경, 박지연, 2017; 문병훈, 이영철, 2016; 차재경, 김진호, 2014).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 제공된 연구는 2편(김보경, 박지연, 2017; 문병훈, 이영철, 2016)으로 김보경과 박지연(2017)의 연구에서는 정기적인 협의회 중 1회기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학년단위로 실행하고 있던 보편적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에 관련된 자문을 받았고, 문병훈과 이영철(2016)의 연구에서는 특수교육과 교수가 학교의 긍정적 행동지원팀의 자문 역할로 참여하여 행동지원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다. 외부전문가가 직접 팀의 일원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차재경과 김진호(2014)의 연구에서는 긍정적 행동지원 실행팀의 일원이었던 연구자가 매주 1회 지도교수와 회의를 통해 전반적인 중재에 관한 연구자 교육을 받았음이 보고되었다.

그 외 긍정적 행동지원을 초등학교 3학년 전체 차원에서만 실시했던 김보경과 박지연(2017)의 연구에서는 교내 모든 교사의 긍정적 행동지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2회에 걸쳐 학

교 소식지를 발간하고,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교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에 대한 교사 연수를 진행하였으며 가정과의 연계를 위해 한 학기 3회의 학부모 소식지를 발행하여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였다.

#### 4) 자료점검

보편적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실행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자료점검의 시기를 분석하였다. 이동철과 이재원(2011)의 연구를 제외한 8편의 연구에서 이루어졌다. 이동철과 이재원(2011)의 연구에서는 학급차원과 개별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중재가 실행되었다고 보고되었으나 개별차원의 행동변화 만이 보고되었고 보편적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의 영향에 대한 측정은 보고되지 않았다. 8편의 연구 중 7편의 연구(강삼성, 이효신, 2012; 김미선, 박지연, 2005; 김미선, 송준만, 2006; 김보경, 박지연, 2017; 문병훈, 이병철, 2016; 윤은미 외, 2007; 차재경, 김진호, 2014)에서 사전사후 자료 점검이 이루어졌고, 2편의 연구(김미선, 송준만, 2006; 김보경, 박지연, 2017)에서 월별로 행동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이선아와 이효신(2015)의 연구에서는 학급전체 학생의 수업 중 문제행동의 변화를 점검하기 위하여 기초선, 중재, 유지기간동안 학급 전체 평균 자료를 막대그래프로 제시하였다.

#### 5) 중재 충실도

보편적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계획한 대로 실행되었는지를 점검한 중재충실도는 4편에서 보고되었다(강삼성, 이효신, 2012; 김보경, 박지연, 2017; 문병훈, 이영철, 2016; 이선아, 이효신, 2015; 차재경, 김진호, 2014).

### 3. 보편적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중재 전략

9편의 분석된 연구의 보편적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중재의 적용은 <표 4>에 제시하였다.

윤은미 외(2007)의 연구를 제외한 8편의 연구에서 환경을 재구조화하였다. 6편의 연구(강삼성, 이효신, 2012; 김미선, 송준만, 2006; 김보경, 박지연, 2017; 문병훈, 이영철, 2016; 이선아, 이효신, 2015; 차재경, 김진호, 2014)에서 학급 규칙을 게시하였고, 5편의 연구(강삼성, 이효신, 2012; 김미선, 박지연, 2005; 김미선, 송준만, 2006; 이선아, 이효신, 2015; 차재경, 김진호, 2014)에서 학생의 자리배치나 책상, 탁자, 사물함 등의 가구를 재배치하여 문제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였다. 2편의 연구(이선아, 이효신, 2015; 차재경, 김진호, 2014)에서는 하루의 일과표를 학급내 제시하여 학생들이 교실에서의 하루 일과를 예측가능하도록 하였다. 2편의 연구(김미선, 송준만, 2006; 이선아, 이효신, 2015)에서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시종소리를 변경하였으며, 김보경과 박지연(2017)의 연구에서는 복도에 발자국 모양의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학생들

〈표 4〉 보편적 차원의 행동지원 중재 전략

연구	환경구조화	기대행동 정하기 및 사전 교수	집중 구호	사회성 기술 교수	자기점검 및 평가	강화	기타
김미선, 박지연 (2005)	환경 구성 (책상, 탁자 등 재배치)개선	명상 3분, 교실에서 지켜야 할 기본 규칙 안내서 확인	중재 개시 1주일 동안 매일 아침 3회 연습	10회기 (20분/회기)	학생 스스로 평가표 작성	자유시간 실시, 토론강화 실시 후 우수 그룹과 개인 시상	×
김미선, 송준만 (2006)	환경 구성 (시중소리, 표어 부착, 사물함 재배치, 책상 등 재배치)	학교규칙과 기대행동 교육	집중구호 익히기	20회기 (20분/회기)	학생 스스로 평가표 작성	자유시간 실시, 토론 강화 실시 후 우수그룹 시상, 질서 우수반 표창	질서 당번제 (모니터링), 학교 체제개선 (회의 최소화, 행정실 직원 지원)
윤은미, 김자경, 강혜진 (2007)	×	규칙정하기	×	10회기 (40분/회기)	학습규칙 지키기 확인표	확인표 근거로 질서 왕 선발(선호활동과 선호물 제공), 모둠왕 선출(선호물 제공)	×
이동철, 이재원 (2011)	구조 재배치, 포스터 게시	사전교수 활동	×	×	×	×	장애이해교육, 도우미 선정
강삼성, 이효신 (2012)	학생 자리 재배치, 학습규칙 게시	학습 규칙 매트릭스 개발, 기대행동 정하기, 학습규칙 교수	중재 개시 1주일 전부터 집중구호 익히기	×	학생 스스로 평가표 작성	자유시간 실시, 학습 파티(전체), 우리반 칭찬왕 시상, 반응대가(개별)	학습질서 도우미제, 학습 홈페이지의 비밀 글쓰기방을 활용한 학생 문제행동에 대한 피드백 제공
차재경, 김진호 (2014)	하루 일과 제시, 학습규칙 게시, 자리 재배치	학습 규칙 제정, 기대행동 교수	×	○	나의 하루 점검표 작성	자유시간 실시(집단), 토론강화(개별), 반응대가	장애인식 개선교육, 학습 도우미제
이선아, 이효신 (2015)	좌석 재배치, 시중, 일과표 제시, 규칙 게시	학습규칙 매트릭스 개발, 기대행동과 위반행동 교수	집중구호 익히기	×	학생 스스로 생활 점검표 작성	토론강화	×
문병훈, 이영철 (2016)	규칙 게시	규칙 정하기, 기대행동 정하기, 기대행동 교수	×	×	자기 평가	사회적 칭찬 (물리적 강화 하지 않음)	×
김보경, 박지연 (2017)	규칙 게시, 시각적 단서(예, 복도 발자국 모양 스티커)	학습규칙 매트릭스 개발, 기대행동 사전교수	×	12회기 (Strong Kids활동)	×	×	교과실/급식실 교사 임장지도

에게 기대되는 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각적 단서를 제시하였고, 이동철과 이재원(2011)은 포스터를 게시하였다.

분석된 9편의 연구 모두에서 기대행동을 정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기대행동의 교수를 실행한 연구는 6편(강삼성, 이효신, 2012; 김미선, 송준만, 2006; 김보경, 박지연, 2017; 문병훈, 이영철, 2016; 이선아, 이효신, 2015; 차재경, 김진호, 2014)이었다. 이선아와 이효신(2015)의 연구에서는 기대되는 행동과 위반행동 모두를 구체적으로 교수하였고, 김미선과 박지연(2005)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지켜야 할 기본규칙 안내서를 제공하고 확인하도록 사전교수를 실시하였다.

보편적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의 실시를 위한 중재전략으로 학급 전체의 집중을 위한 집중 구호를 정하고 익히는 시간을 가진 연구는 4편(강삼성, 이효신, 2012; 김미선, 박지연, 2005; 김미선, 송준만, 2006; 이선아, 이효신, 2015)이었다. 모두 초등학교에서 실행된 연구로 예를 들어 학급별로 “지금은 참 조용한 우리 반”, “3학년 0반은이라고 선창하면 ‘우리가 주인’”과 같은 주의집중 구호를 정하여 익히고 수업전, 이동시, 수업의 주의집중도가 낮아졌을 때와 같이 학교 일상에서 활용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성 기술을 교수한 연구는 5편(김보경, 박지연, 2017; 김미선, 박지연, 2005; 김미선, 송준만, 2006; 윤은미 외, 2007; 차재경, 김진호, 2014)이었다. 회기 당 20-40분정도로 10-12회기 분량의 구체적인 사회성 기술 교수가 이루어졌으며, 김보경과 박지연(2017)의 연구에서는 기존에 사회정서학습 차원에서 개발되어 있는 Strong Kid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사회성 기술을 교수하였다. 차재경과 김진호(2014)의 연구에서는 사회성 기술을 실행하였음을 언급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회기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았다.

기대되는 행동에 대한 학생 스스로 자기점검 및 자기평가를 실행한 연구는 이동철과 이재원(2011), 김보경과 박지연(2017)의 연구를 제외한 7편이었다. 학생들의 행동에 대한 강화체계를 수립하고 실행한 연구도 이동철, 이재원(2011), 김보경과 박지연(2017)의 연구를 제외한 7편의 이었다.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집단 강화 뿐만 아니라 토큰경제를 실시하여 개별차원과 집단차원의 강화체계를 개발하고 실행하였다. 우수 집단과 개인에게 ‘질서왕’, ‘칭찬왕’ 등의 이름으로 시상식을 하거나 학급 전체가 일정한 목표에 도달하였을 때 자유시간을 얻거나 파티를 열었다. 강화체계에서 반응대가를 활용한 연구는 2편(강삼성, 이효신, 2012; 차재경, 김진호, 2014)이었고, 문병훈과 이영철(2016)의 경우 사회적 칭찬만을 제공하고 물질적 강화는 제공하지 않았음을 언급하였다.

이외에 실시된 전략으로는 통합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식 개선 교육과 장애학생 도우미를 선정하여 운영한 연구가 2편(이동철, 이재원, 2011; 차재경, 김진호, 2014), 학급질서 도우미(당번)제도를 실행한 연구가 2편(강삼성, 이효신, 2012; 김미선, 송준만, 2006)이었다. 강삼성과 이효신(2012)은 학급 홈페이지의 비밀 글쓰기 방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였고, 김보경과 박지연(2017)은 교과실과 급식실에서 교사의 임장지도 실시를 보고하였다.

#### IV. 논 의

본 문헌분석에서는 보편적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을 실행한 국내 연구 9편을 일반적인 특성, 실행 단계 그리고 활용된 중재전략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른 논의와 추후 연구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의 일반학교에서 실행된 보편적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연구들은 2005년부터 보고되었고,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도 긍정적 행동지원을 일반학교에서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에게 적용하여 보편적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의 실행가능성과 효과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분석된 9편의 연구 중 8편이 초등학교에서 실행되었는데 이는 긍정적 행동지원의 개념을 국내에 소개하기 시작한 분야가 특수교육 분야이고 초·중·고등학교 중 장애학생의 통합교육관련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학교급이 초등이다 보니(이숙향, 2010) 긍정적 행동지원의 개념과 구체적인 실행에 관하여 통합학교에 소개하고 시행하기에 초등이 국내 여건상 용이하지 않았나 여겨진다. 그러나 사춘기 등의 영향으로 학교차원에서 체계적인 행동지원 요구가 높아지는 학교급이 중·고등학교 입을 고려해 볼 때 통합 중·고등학교에서 긍정적 행동지원의 실행을 시도해보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일반학교 전체 차원에서 긍정적 행동지원이 실행된 연구는 문병훈과 이영철(2016)의 연구가 유일하였다. 문병훈과 이영철(2016)의 연구에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전학년, 전교직원이 참여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전교생이 67명인 소규모 학교였고, 그 외 김미선과 송준만(2006)의 연구와 김보경과 박지연(2017)의 연구에서는 한 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실행되었는데 참여학생은 각각 237명, 51명이었다. 이렇게 일반학교 전체 차원에서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을 위한 행동관리 전략으로서의 긍정적 행동지원 연구가 소수인 이유는 긍정적 행동지원을 국내에 소개한 분야가 특수교육 분야이고 긍정적 행동지원이 장애학생의 문제행동 중재를 위한 개별차원의 행동지원으로 여겨지면서 일반학생들을 위한 행동지원 전략으로 여겨지기에는 아직 일반교육 분야에서 인식의 부족 때문이 아닌가 싶다. 긍정적 행동지원이 발전한 북미의 경우 보편적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일반학교 전체 차원에서 모든 학생들의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전략으로 여겨지는 것과 비교했을 때(노진아, 김연하, 역, 2008/2012) 아직 국내에서는 그러한 인식의 확산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다. 특수교사 뿐만 아니라 일반교사들도 일반학생들의 행동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전략을 고민하는 최근의 국내 학교 현장을 고려해 볼 때 보편적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의 개념과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일반교육 분야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보편적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활용한 실험설계 측면에서 대부분의 연구가 비교집단 없이 긍정적 행동지원 실시 전과 후를 비교하는 사전·사후 비교 설계를 사용

하고 있었다. 이는 보편적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각 학교의 문화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실행한다는 측면에서 엄격한 실험통제를 활용하기에 용이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 강조되고 있는 근거기반의 실재를 활용한 교수 측면에서 긍정적 행동지원을 사용하지 않는 학교를 비교 집단으로 하여 보편적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을 실행하였을 때의 성과를 살펴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보편적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의 실행을 통한 성과 측면에서 학교 혹은 학급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을 통해 대부분의 연구에서 전체 학생의 문제행동의 감소를 보고하였고,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학교 분위기의 향상(김미선, 송준만, 2006; 김보경, 박지연, 2017), 혹은 학교생활 만족도의 향상(강삼성, 이효신, 2012; 문병훈, 이영철, 2016)을 보고하였으며, 훈육지도의 감소를 보고한 연구(김미선, 송준만, 2006)는 1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외 학교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을 분석한 김영란(2009)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상이한 것으로 국외 연구에서는 분석된 연구 13편 중 주로 훈육실 의뢰수를 보고하였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교생활 만족도나 학교분위기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국내의 일반학교에서 보편적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의 실행에 있어 고무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북미에서도 훈육실 의뢰수의 감소 만으로는 긍정적 행동지원의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제한적이라는 반성이 제기되면서 긍정적인 행동의 증가와 전반적인 학교 문화의 변화를 측정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긍정적 행동지원의 궁극적 목적이 장기간의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통해 삶의 질의 변화라고 했을 때(이소현, 박지연, 박현욱, 윤선아 역, 2008) 문제행동과 학교분위기의 개선 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의 삶의 질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을 위한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보편적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학교에 속한 공동체의 노력을 통해 전체 학교 체제를 변화시켜 이루고자 한다는 점에서 교직원, 학생 뿐만 아니라 학생의 가족을 포함하는 학교공동체가 긍정적 행동지원의 성과를 얼마나 의미있게 받아들이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9편의 연구 중 3편 만이 사회적 타당도를 측정하였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학교공동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사회적 타당도를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실행 단계 측면에서 몇 가지 논의를 전개해 보면, 보편적 차원에서 긍정적 행동지원을 실행하기 전에 기존에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훈육방법과 그 효과를 점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분석된 논문 9편 중 3편에서만 기존의 훈육지도 자료와 문제행동 지도 자료를 점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순히 보편적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이유로 교육 현장에 적용하자는 논리가 아니라 기존의 행동관리 전략이 무엇이 문제였고 어떠한 면에서 개선이 필요한지 진단평가가 선행되어야 각 학교의 고유한 학교문화에 적합한 보편적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계획되고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분석과정에서 도출된 긍정적인 결과는 9편의 연구 중 8편의 연구에서 교직원 및 학생과의 면담 혹은 직접 관찰을 통해 현 학교 상황을 파악하고 진단평가 자료에 근거한 실행계획이 고안되었다는 점이다. 긍정적 행동지원이 과거의

행동지원과 구분되는 점은 기능평가일 것이다. 즉, 문제행동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적절한 중재 전략의 고안을 통해 성공적인 행동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별학생이 아닌 학교 차원 및 학급차원에서 문제행동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쉬운 작업이 아니다. 추후 연구에서는 면담과 직접 관찰 이외에 보편적 차원에서 문제행동의 원인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방법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중재 전략 측면에서 분석된 9편의 연구 모두에서 기대행동을 정하는 과정이 포함되었다. 학교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은 기대행동을 교수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지원하며 문제 행동 발생시 교정하는 중재들이 주로 사용된다(노진아, 김연하, 역, 2008/2012). 분석된 연구들에서 일반적인 학교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의 중재 요소가 모두 포함되기는 하였으나 기대되는 행동을 중재 전 사전교수하고 중재 중에도 정기적으로 교수하는 과정은 6편의 연구에서 보고되었다. 긍정적 행동지원을 실행하지 않더라도 현 학교현장에서 학기 초 학급규칙을 정하고 게시하는 활동은 매우 자연스럽다. 긍정적 행동지원에서 의미하는 기대행동 정하기와 교수는 단순히 규칙을 정하고 게시하는 것을 넘어 이러한 규칙이 학생 개개인에게 내면화 되고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을 만큼 집중적인 직접교수와 연중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교수를 포함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직접교수와 정기적인 교수를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분석된 보편적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학교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뿐만 아니라 학급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실행된 중재 요소들 중 사회성 기술의 교수, 자기관리 전략의 교수와 강화 등과 같이 학교 전체 차원보다는 2차적인 긍정적 행동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위한 중재전략들이 다수의 연구에서 활용되었을 가능성도 내포한다. 본 연구에서는 김미선과 송준만(2004)이 국외 연구 고찰을 통해 제시한 보편적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적용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를 바탕으로 분석되었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국내 일반학교에서 학교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과 학급차원에서 일반교사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중재 전략들이 무엇이 있을지 좀 더 정교한 분석과 연구가 요구된다 하겠다.

본 연구는 국내 일반학교 전체 및 학급전체 차원에서 장애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의 행동관리 전략으로서의 보편적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의 적용가능성과 그 성과를 탐색하고 실제 일반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중재 요소를 고찰하고자 이루어졌다. 국내의 경우 보편적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특수학교 및 유아교육현장에서 실행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유아교육현장의 경우 통합어린이집이나 통합유치원에서 주로 학급 차원에서 보편적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실행되고 있었다(박정숙, 윤미경, 이병인, 2013; 이제화, 2010; 최미점, 2016; 최진화, 류명옥, 노진아, 2015). 그러나 본 연구가 학령기 학생을 위한 초·중·고등학교에서 긍정적 행동지원의 적용가능성과 그 성과를 살펴보는데 한정하였기 때문에 분석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추후 연구에서는 일반학교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 특수학교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는 보편적 차원

의 긍정적 행동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국내 일반교육 현장에서 특수교사 뿐만 아니라 일반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행동지원의 요소 및 실행전략에 대한 연구들이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 장민채 (2011). 국내 긍정적 행동지원 관련 연구의 동향 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13(3), 163-183.
- \*강삼성, 이효신 (2012). 학급수준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통합학급 초등학생의 문제행동과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28(3), 1-35.
- 김경양, 남보람, 김영란, 박지연 (2010). 학교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에 관한 문헌연구: 보편적 지원의 실행과 성과를 중심으로. 특수교육, 9(3), 117-140.
- 김미선 (2008). 효율적인 학급관리로서의 학급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1(1), 99-112.
- \*김미선, 박지연 (2005). 학급차원의 긍정적인 행동지원이 문제행동을 보이는 초등학교 장애학생과 그 또래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학연구, 40(2), 355-376.
- 김미선, 송준만 (2004). 장애학생을 위한 학교차원에서의 긍정적 행동 지원 고찰. 특수교육, 3(1), 31-56.
- \*김미선, 송준만 (2006). 학교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문제행동과 학교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학연구, 41(3), 207-227.
- \*김보경, 박지연 (2017). 학년 단위의 긍정적 행동지원을 통해 실시된 보편적 지원이 통합학급 초등학생의 사회적 능력, 수업참여행동 및 학교분위기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33(1), 85-105.
- 김보람, 나경은 (2010). 자폐아동을 위한 긍정적 행동지원에 관한 실험연구의 질적 지표에 의거한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1(2), 21-45.
- 김영란 (2009). 보편적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에 관한 문헌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0(4), 81-106.
- 김유리, 양영모, 노진아 (2015). 긍정적 행동지원 관련 단일 대상 연구의 동향 및 질적지표에 의한 연구방법의 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17(1), 51-81.
- 김지영, 고희정 (2014). 지적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긍정적 행동지원(PBS) 연구 메타분석: 국내 실험연구를 중심으로.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3(1), 159-178.
- 김창호, 김정민, 백은희 (2011). 정신지체 학생을 위한 긍정적 행동지원 국내·외 실험연구 고찰. 특수아동교육연구, 13(2), 315-339.

- 김현욱 (2017). 초등학교 경영을 위한 긍정적 행동지원(PBS) 방법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8), 95-115.
- 노진아, 김연하 역 (2012). 프로그램·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 시스템을 실행하기. (원저 M. Stormont, T. J. Lewis, R. Beckner, N. W. Johnson, 2008년). 서울: 시그마프레스.
- 문병훈, 이영철 (2014). 지적장애학생을 위한 긍정적 행동지원(PBS) 메타분석: 최근 15년간(1999년~2013년) 국내 학위논문 및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지적장애연구, 16(1), 1-30.
- \*문병훈, 이영철 (2016). 학교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초등 지적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문제 행동 및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학연구, 51(2), 71-92.
- 박정숙, 윤미경, 이병인 (2013). 학급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일반유아들과 장애위험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특수교육연구, 13(1), 97-119.
- 박지연, 조윤경, 김미선 (2004). 일반학급 내 정서 및 행동문제를 가진 아동의 특성과 지원 요구에 대한 질적 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20(2), 251-284.
- 신윤희, 윤주연, 구현진, 구원옥, 최미향, 장수정, 김경서 (2009). 근거 기반의 실제(Evidence-based practice)를 구축하기 위한 질적 지표 및 로드맵을 통한 분석: 국내의 긍정적 행동지원 전략 연구들을 중심으로. 정서·행동장애연구, 25(3), 137-165.
- \*윤은미, 김자경, 강혜진 (2007). 긍정적인 행동지원이 정인지체학생과 급우의 수업시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교사교육연구, 46(2), 1-22.
- \*이동철, 이재원 (2011). 학급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통합체육수업 시 장애학생의 수업행동, 교사와의 상호작용, 신체활동에 미치는 효과. 한국특수체육학회지, 19(3), 33-48.
- \*이선아, 이효신 (2015). 초등학교 학생의 수업 중 문제행동 개선을 위한 학급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의 적용. 정서·행동장애연구, 31(2), 61-84.
- 이소현, 박지연, 박현옥, 윤선아 역 (2008). 장애학생을 위한 개별화 행동지원: 긍정적 행동지원의 계획 및 실행(원저 L. M. Bambara, & L. Kern, 2005년). 서울: 학지사.
- 이숙향 (2010). 국내 중등 통합교육연구의 동향 및 향후 과제 고찰.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1(3), 339-369.
- 이제화 (2010). 학급수준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통합된 발달지체 유아의 문제행동과 활동참여행동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1(1), 359-383.
- 정길순, 노진아 (2011). 긍정적 행동지원 연구 동향 분석: 1997년에서 2010년까지의 국내 특수교육 관련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특수아동교육연구, 13(1), 103-124.
- 정은주 (2013). 초등학교 일반학급에서 긍정적 행동지원을 적용한 연구에 관한 문헌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4(3), 85-110.
- \*차재경, 김진호 (2014). 학급단위의 보편적 차원 긍정적 행동지원이 통합학급 학생들의 수업 참여행동과 방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지적장애연구, 16(4), 85-109.

- 최미점 (2016). 보편적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통합학급 유아들의 수업행동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유아특수교육연구*, 16(4), 1-21.
- 최선실, 박승희 (2001). 통합교육 실시를 위한 원적학급 일반교사의 지원 요구. *초등교육연구*, 14(2), 319-347.
- 최진화, 류명옥, 노진아 (2015). 학급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일반 유아의 문제행동과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6(2), 19-42.
- Freeman, R., Eber, L., Anderson, C., Irvin, L., Horner, R., Bounds, M., & Dunlap, G. (2006). Building inclusive school cultures using school-wide positive behavior support: Designing effective individual support systems for students with significant disabilities. *Research & Practice for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31(1), 4-17.
- Horner, R. H., Sugai, G., Todd, A. W., & Lewis-Palmer, T. (2005). School-wide positive behavior support: An alternative approach to discipline in schools. In L. M. Bambara & L. Kern(Eds.) *Individualized supports for students with problem behaviors: Designing positive behavior Plans* (pp.359-390). New York: Guildford Press.
- Sugai, G., & Horner, R. (2002). The evolution of discipline practices: School-wide positive behavior supports. *Child & Family Therapy*, 24(1/2), 23-50.
- Turnbull, A., Edmonson, H., Griggs, P., Wickham, D., Sailor, W., Freeman, R., Guess, D., Lassen, S., McCart, A., Park, J., Riffel, L., Turnbull, R., & Warren, J. (2002). A Blueprint for schoolwide positive behavior support: Implementation of three components. *Exceptional Children*, 68(3), 377-402.

\*분석논문임

Abstract

---

## A Descriptive Analysis of Research on Universal Positive Behavior Support in Korean Journal

Hayoung Choi\*

Positive Behavior Support has been emerging with concerns regarding how to addressing behavior problems in schools. This study investigated studies implemented schoolwide and classwide positive behavior support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Through Korean academic databases, 9 research articles published in Korean journals from 1997 to 2017 were identified, and these were analyzed based on three analysis frameworks: general characteristics, implementation stages and utilized intervention strategies. The results showed that schoolwide positive behavior support were implemented in 3 studies, and classwide positive behavior support were conducted in 6 studie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implementation stages of positive behavior support on the universal level, mostly special teachers, general teachers, and researchers participated in the positive support implementation team and held teacher education and regularly held team meetings for high fidelity performance. Thirdly, intervention strategies using universal positive behavior support include restructuring the environment, setting expected behaviors, direct teaching expected behaviors, self-monitoring and evaluating, and implementing reinforcement system.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discussion and future directions for research were suggested.

Keywords: Schoolwide, Classwide, Universal, Positive Behavior Support, Inclusive school

게재 신청일 : 2017. 09. 18

수정 제출일 : 2017. 10. 22

게재 확정일 : 2017. 10. 24

---

\* 최하영(교신저자)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hayoung@knue.ac.kr)